

# 여야 '망언 3인방' 국회 윤리위 제소 의원직 제명 추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 한국당 의원들 '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망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5·18 모독 망언' 때문에 한국당이 구석에 몰리고 있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적인 출당 조치로 법률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주최한 5·18 공청회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최악의 난장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화 왜곡 시도에 쐬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제소할 예정이며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 추진을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평화당은 또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민주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

평화·정의당 고소·고발 나서

한국당 "당 입장 아니다" 진화

광주시의회 등 지역정가 반발

북한군 개입설을 편 지만원씨도 함께 법적 조치 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또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총칼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테러를 자행했다면, 39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인 한국당의 망언과 왜곡, 날조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라며 "전두환은 영웅", "광주폭동", "총복 죄파가 만든 괴물 집단"이라니 논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인 만큼 당의 공식 입장은 거리가 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4·19은 5·18이든 역사적 사실이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곤란하다"고 적었다.

지역 정가도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하려 하자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 일부 의원이 지금도 고통받는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을 심각하게 모독했다"며 "한국당 항의방문 등을 시작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실천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 "150만 광주 시민은 한국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회에서 국민과 광주 시민을 우롱한 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국민과 광주 시민

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 "한국당 일부 의원과 5·18 왜곡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만원이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는 망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청장협의회는 "5월 영령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예타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시·군·구 기초단체장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 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또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제·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5·18 진실 짓밟는 망행...5월 영령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성명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향해 "5·18 진실을 짓밟는 망언자"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9일 성명을 내고 "28 독립선언 100주년이었건 지난 8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진실을 짓밟는 부끄러운 망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씨는 또다시 '5·18은

북한 특수군들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은 '폭동이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세금을 추내고 있다'는 망언으로 오월 영령과 민주시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50만 광주 시민은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망언자들은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하고 허무맹랑한 거짓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온전한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믿음을 갖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세치의 혀로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숭고함과 역사적 의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중항쟁"이라며

"이들의 발언은 시대착오적 망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날조한 지만원과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면서 "특히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청산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정치권과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 7 회 전국 교역자 및 성도 세미나 (초교파)

# 하나님과 여호와, 예수님과 멜기세덱,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강사 :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 저자 조영래 목사 직강

- ▶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 2월 16일(토) 14:00~18:00
- ▶ 장소: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52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4층)
- ▶ 문의 및 신청: 010-8535-2007, 010-8991-7487, 010-9114-6654
- ▶ 참가비: 없음
- ▶ 블로그: blog.naver.com/osbooks
- ▶ 주최: 오색이슬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개혁 중부노회)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판매 중)

1권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 2권 이 땅의 주, 그는 누구인가?  
 3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들은 누구인가? / 4권 네 생물, 그들은 누구인가?  
 5권 666, 그들은 누구인가? / **별책** 장안산(上)

출간 예정 : 6권 '작은책', 7권 '멜기세덱 후편',  
 8권 '이땅의 전쟁은 이나라 이민족의 운명이다'  
 9권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10권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어떻게 다른가? / **별책** 장안산(下)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 맞춤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역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안내해드립니다.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이란?

노사민정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지역에게 '지역산업·지역노동시장 등 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 협의체회의, 대토론회 등 일자리모델 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2018년도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수원시, 아산시, 시흥시 SICHEUNG CITY, 광양시 GWANG YANG CITY, 충청북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2019년에도 2월에 참여기관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